

물리치료사 유머감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이경현 · 이정현 · 김기태 · 김상재 · 임지영 · 김지훈 · 손경현

한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a Physical Therapist's Sense of Humor and Empowerment

Kyung-Hyun Lee, Jung-Hyun Lee, Ki-Tae Kim, Sang-Jae Kim, Ji-Young Lim,

Ji-Hoon Kim, Kyung-Hyun Son

¹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Hanlyo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increasing a physical therapist's empowerment and suggesting effective ways to incorporate humor into the physical therapist's organizations by investigating a level of perceived sense of humor and empowerment, as well a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ethod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country's 9 general hospitals, 11 rehabilitation hospitals, 20 clinics. The data of general characteristics, sense of humor, and empowerment were collected from 1 August 2012 to 25 August 2012. A total of 300 clinical instructor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The call response rate was 94.7%(n = 28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pc + 12.0

Result : 1. The mean score of the physical therapist's sense of humor was 56.53 ± 05.58 out of 84 and each of the sub-dimensions were scored in order of emotional expressiveness, liking of humor and metamessage sensitivity. 2. The mean score of the physical therapist's empowerment was 56.67 ± 12.72 out of 84 and each of the sub-dimensions scored in order of meaning,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and impact.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nse of humor and the empowerment($r = 0.093$, $p = 0.118$). 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nse of humor.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the empowerment by sex, marriage, workers satisfaction, age, attainment in scholarship, workplace, and duration of work. **Conclusion** :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nse of humor and the empowerment. the sub-dimension of human preference was significant.

key words : Empowerment, Physical therapist, Sense of humo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적 요구도 증가와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화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태우, 2005).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수준 높은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조직 대부분은 노동 집약적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최원주, 2010).

최근 의료 환경은 소비자의 질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건강관리 비용의 상승, 의료 서비스 기관간의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 조직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비전이나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정과 하나선, 2007). 병원은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으로 특히, 물리치료사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 환자에게 직접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고객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업무에 만족할 수 있는 질적인 인력 관리가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김희승 등, 2004; 박재산, 2004).

물리치료사는 치료 과정 중에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감과 초조함을 갖고 있는 환자를 위해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도록 요구받는다. 따라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치료사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광점과 정명숙, 2006).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은 의료서비스의 질

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물리치료사의 주된 역할중의 하나는 환자를 격려하고 손상 받은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 변화에 맞춰 인간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 지식과 치료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문제강 등, 2010).

직무탈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직무탈진과 직무만족은 음(-)의 상관관계 있으며(김연희, 2010) 직무탈진을 느끼는 사람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고(Cherness, 1987) 직무에 대한 불만, 일에 대한 냉소, 낮은 업무수행 능력, 지각 및 이직률 증가, 사고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Schaufeli와 Enzmann, 1988).

조직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그와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인적자원이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적자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직에서 제공해야한다(정현우, 2012).

지난 이십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음이 신체의 다양한 계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웃음은 오늘날 사망 원인 제 1위인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혈압, 심장질환, 불안감, 우울증, 잦은 기침과 감기, 소화성 궤양, 불면증, 알레르기, 천식, 생리불순, 긴장성, 두통, 배탈, 심지어 암 같은 질병의 70퍼센트 이상이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웃음이 혈압을 낮추고 근육을 풀어주며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고 체내 산소량을 증가시키며 기분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품게 해주며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건강 유지의 열쇠인 면역체계를 증강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처럼 웃음은 질병의 예방효과와 치료효과를 모두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최영남, 2008).

유머감각이 있거나, 잘 웃는 직원이 일을 잘 한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과

조직이 결국 회사의 유효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유머경영이다. 유머란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우습다고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고 이러한 유머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Pasquali, 1990). 이처럼 인적자원 중심의 훌륭한 일터를 구현할 수 있는 유머경영이 전략 경영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그 중심에 유머감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에서 유머감각과 경영 조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유머감각이 직무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고객지향성, 스트레스, 임파워먼트, 이직의도, 창의성과 같은 조직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Puderbaugh, 2006).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권한을 배분한다는 의미를 넘어 구성원들을 동기부여 시켜 그들이 단순히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거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Carolyn 등, 1991). 임파워 된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증대된다(Sabiston 등, 1995). 또한 이들은 내재된 동기에 활기를 부여하게 되며 스스로 몰입한다. 따라서 임파워된 구성원은 조직에 헌신적이고 자신의 경력을 향상시키며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성 있는 접근을 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이 되며 궁극적으로 이들은 상황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며 고도의 동기를 유발하여 다른 사람을 임파워 시키거나 동기화 시킬 수 있다(Laschinger 등, 1996).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권한을 부여 하거나 위임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능력을 키워 가는 과정 이라할 수 있다(한명수, 1999).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과 병원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병원조직의 구성원인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포함하는 의료 인력에게 주요하게 요구되는 것이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병원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업무관련 스트레스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은 무기력감, 좌절감등을 야기해서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심재훈, 2009).

유머감각으로 인한 경영 조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유머감각이 조직의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가 물리치료사조직의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유머 감각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임상에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유머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또한 이와 같은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조직에 유머를 적용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가 인지한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의 정도를 파악하고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물리치료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물리치료사의 유머감각 정도를 파악한다.
- 3)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정도를 파악한다.
- 4)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의 차이를 분석한다.
- 5)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분석한다.
- 6) 물리치료사의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국에 위치한 종합병원 9개, 재활병원 11개, 의원 20개 등 재직 중인 물리치료사 2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만 22세부터 만 52세 사이로 현재 재직 중인 물리치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 설명이 있는 후 현장에서 직접배부, 작성하게 한 뒤 즉시 회수하였는데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8월 25일까지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284부를 회수 하였으며 응답률은 94.7%였다.

2. 조사 방법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효과성), 물리치료사의 유머감각(메타메시지 감수성, 유머선호도, 정서표현성) 물리치료사의 연령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결혼유무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학력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병원형태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경력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근무부서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종교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현 직장 만족도에 따른 임파워먼트, 내용 등 12문항으로 구성하여, 7가지의 척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유머감각, 성별에 따른 유머감각, 결혼유무에 따른 유머감각, 학력에 따른 유머감각, 병원형태에 따른 유머감각, 경력에 따른 유머감각, 근무부서에 따른 임파워먼트, 유머감각, 종교에 따른 유머감각, 현 직장 만족도에 따른 유머감각 등 21문항으로 구성하여, 4가지의 척도로 나누어 구성 하였다.

1) 유머감각

Svebak(1974)이 개발한 SHQ(Sense of Humor Questionnaire)를 황명숙(1991)이 사용한 것을 일부 수정·보완하였고 정서 표현성, 메타메시지, 메타메시지 감수

성, 유머선호도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만들어 내거나 느끼는 정도를 자기 평가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다. 세 개의 하위영역마다 7문항씩 모두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점수의 범위는 21~84점이며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범위에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위한 도구는 Spreitzer(1995)가 개발하고 정해주(1998)가 번역하여 사용한 설문지로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임파워먼트 하위영역은 의미성(meaning), 역량(competence),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효과성(impact)의 네 영역이다. 각 영역에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12~84점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7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는 2012년 5월에 제작되었고, 동년 6월까지 손현숙(2009)의 설문지를 근거로 수정하였으며, 2012년 7월에 예비조사를 한 후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3. 자료분석

조사된 설문지의 각 문항을 부호화 한 후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고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유머감각을 알아보기 위해 일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법칙(ANOVA)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284명으로 25세 이하가 25.4%, 26~29세가 36.3%, 30세 이상이 38.4%로 3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47.5%였고 여자가 52.5%였

다. 결혼은 기혼이 28.2%로 미혼 71.8%보다 적은 수였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45.1%였고 대학졸이 49.3%였으며 대학원졸은 5.6%였다, 병원형태는 종합병원 26.1%, 재활병원 45.8%, 의원 28.2%였다, 경력은 1년 이하가 18.7%, 2~4년이 36.6%, 5~9년이 26.1% 10년 이상 18.7%였다. 근무부서에서는 신경계물리치료 38.0%, 통합물리치료 34.2%, 근골격계물리치료 22.2%, 기타 5.6%였다. 종교는 종교를 가진자는 84.5%였고 무교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15.5%였다. 근무만족여부에서 만족은 84.5%, 불만족은 15.5%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n = 284)

특성	구분	n(%)
연령(세)	25 이하	72(25.4)
	26~29	103(36.3)
	30 이상	109(38.4)
성별	남자	135(47.5)
	여자	149(52.5)
결혼	기혼	80(28.2)
	미혼	204(71.8)
학력	전문대	128(45.1)
	대학졸	140(49.3)
	대학원	16(5.6)
병원형태	종합병원	74(26.1)
	재활병원	130(45.8)
	의원	80(28.2)
경력(년)	1년 이하	53(18.7)
	2년~4년	104(36.6)
	5년~9년	74(26.1)
	10년 이상	53(18.7)
근무부서	신경계 물리치료	108(38.0)
	통합 물리치료	97(34.2)
	근골격계물리치료	63(22.2)
	기타	16(5.6)
종교	유교	240(84.5)
	무교	44(15.5)
근무만족여부	만족	240(84.5)
	불만족	44(15.5)

(M±SD)

1. 물리치료사의 유머 감각 점수

물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유머감각 정도는 평균 56.53 ± 05.58 이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표현성이 19.13 ± 01.5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머선호도 19.00 ± 02.29 , 메타메시지 감수성 18.40 ± 01.79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물리치료사의 유머감각 점수

유머감각	평균±표준편차	하한	상한
정서표현성	19.13±01.50	18.96	19.31
메타메시지 감수성	18.40±01.79	18.17	18.59
유머선호도	19.00±02.29	18.73	19.27
계	56.53±05.58	55.86	37.90

(M±SD)

2.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점수

물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임파워먼트의 평균은 56.67 ± 12.72 의미성에서 15.50 ± 03.01 로 가장 높은 평을 보였으며 역량 14.65 ± 02.84 , 자기결정성 14.00 ± 03.31 , 효과성 12.52 ± 03.56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점수

임파워먼트	평균±표준편차	하한	상한
의미성	15.50±03.01	15.15	15.85
역량	14.65±02.84	14.32	14.99
자기결정성	14.00±03.31	13.63	14.40
효과성	12.52±03.56	12.11	12.94
계	56.67±12.72	55.21	58.18

(M±SD)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에서 결혼, 성별, 종교, 근무만족여부, 연령, 학력, 병원형태, 경력, 근무부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n = 284)

특성	구분	n	M±SD	t or F	p
성별	남자	135	56.36±04.34	0.606	0.55
	여자	149	56.66±04.05		
결혼	기혼	80	56.31±04.99	0.526	0.60
	미혼	204	56.60±03.84		
종교	유교	131	56.47±03.77	0.178	0.86
	무교	153	56.56±04.52		
근무만족 여부	만족	240	56.53±04.25	0.036	0.97
	불만족	44	56.50±03.88		
연령(세)	25 이하	72	57.39±04.18	2.341	0.10
	26~29	103	56.02±03.54		
	30 이상	109	56.42±04.67		
학력	전문대	128	56.39±04.06	0.912	0.40
	대학졸	140	56.77±04.09		
	대학원	16	55.38±05.74		
병원형태	종합병원	74	56.89±04.56	2.371	0.10
	재활병원	130	56.84±04.23		
	의원	80	55.66±03.64		
경력(년)	1년 이하	53	57.06±04.07	0.523	0.67
	2년~4년	104	56.62±03.87		
	5년~9년	74	56.23±04.03		
	10년 이상	53	56.21±05.07		
근무만족 여부	통합 물리치료	97	56.58±04.09	0.251	0.86
	신경계 물리치료	108	56.52±04.18		
	근골격계 물리치료	63	56.25±04.15		
	기타	16	57.25±05.14		

(M±SD)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에서 성별여부에서는 남자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결혼, 근무만족, 연령, 학력, 병원형태,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사후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25세 이하와 30

세 이상, 26~29세와 30세 이상에서, 학력에서는 전문대와 대학졸, 전문대와 대학원, 병원형태에서는 종합병원과 의원,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에서, 경력에서는 1년 이하와 5년과 9년, 1년 이하와 10년 이상, 2년에서 4년과 10년 이상, 5년에서 9년과 10년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종교, 근무부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n = 284)

특성	구분	n	M±SD	t or F	p
성별	남자	135	58.67±10.80	3.137	0.00
	여자	149	54.89±09.47		
결혼	기혼	80	62.93±10.62	6.911	0.00
	미혼	204	54.24±09.06		
종교	유교	131	56.52±10.82	0.254	0.80
	무교	153	56.83±09.83		
근무만족 여부	만족	240	57.35±10.49	2.547	0.01
	불만족	44	53.09±08.26		
연령(세)	25 이하	72	52.29±09.17	19.648	0.00
	26~29	103	55.17±09.45		
	30 이상	109	61.02±10.17		
학력	전문대	128	55.87±09.02	10.228	0.00
	대학졸	140	59.19±10.57		
	대학원	16	71.31±11.65		
병원형태	종합병원	74	61.18±10.83	5.322	0.01
	재활병원	130	58.25±10.47		
	의원	80	56.00±08.80		
경력(년)	1년 이하	53	52.08±08.61	17.623	0.00
	2년~4년	104	54.47±09.73		
	5년~9년	74	57.68±10.48		
	10년 이상	53	64.26±10.28		
근무만족 여부	통합물리치료	97	56.72±10.75	0.201	0.90
	신경계 물리치료	108	56.95±10.73		
	근골격계 물리치료	63	55.90±08.63		
	기타	16	57.75±11.05		

(M±SD)

5.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유머감각 정도와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유머선호도, 역량과 유머선호도, 자기결정성과 유머감각, 자기결정성과 유머선호도, 효과성과 유머선호도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5$).

표 6.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유머감각	정서표현성	메타메시지 감수성	유머선호도
임파워먼트	0.093 (0.118)	0.051 (0.395)	-0.094 (0.114)	0.210(**) (0.000)
의미성	0.032 (0.593)	-0.001 (0.980)	-0.04 (0.497)	0.091 (0.127)
역량	0.074 (0.216)	0.025 (0.675)	-0.097 (0.103)	0.194(**) (0.001)
자기결정성	0.126(*) (0.034)	0.109 (0.066)	-0.081 (0.174)	0.221(**) (0.000)
효과성	0.066 (0.265)	0.026 (0.663)	-0.085 (0.153)	0.171(**) (0.004)

* $p < 0.05$, ** $p < 0.01$

IV. 고 찰

본 연구는 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유머 감각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임상에서 유머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살펴봄, 또한 이와 같은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조직에 유머를 적용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유머 감각을 보면 평균 56.53 ± 05.58 이었다. 이는 도구상의 중간점수인 42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평균 평점 4점 중 2.6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논문과 비교할 수 있다. 손현숙(2008)의 연구를 보면 평균 54.33 ± 5.12 로 나타난 것과 서문자와 김근순(1993)의 연구에서 유머감각 총점의 평균이 56.29점으로 도구상의 중간점수인 40점 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신현주(1999)의 연구에서 평균 평점 4점 중 2.97점으로 도구상의 문항 중간 점수인 2점 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민순 등(2004)의 간호사 16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유머를 잘 구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잠재된 유머산화형인 75~89점이 45%, 유머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90~125점 사이는 25.4%로 많은 간호사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유머 감각정도는 높게 측정되었고 이는 간호사들이 유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자와 김금순(199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이 근무지에서 유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고, 김묘성(2002)의 연구에서도 33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유머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유머 가치 점수가 최저 11점, 최고 55점에서 평균 41.9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가 유머러스할수록 간호 업무성과가 향상되어질 수 있다. 민순 등(2004)의 연구에서는 제안을 고려하면 간호사들의 유머감각이 높게 측정된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며 간호사가 병원조직 인적자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의 높은 유머감각은 조직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웃음, 유머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병원조직에서 간호사가 효과적인 유머를 구사할 수 있도록 유머사용의 능력 개발을 위한 방안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유머 감각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정서 표현성이 평균 19.13 ± 1.50 로 하위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유머선호도가 19.00 ± 02.29 점, 메타메시지 감수성이 평균 18.40 ± 01.79 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물리치료사는 유머반응으로써 웃음을 포함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성향은 높지만 이에 비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머를 인지하는 능력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메시지 감수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물리치료사가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자신의 감정을 모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김묘성(2002)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유머 사용 시 방해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순위별로 업무의 과중 때문이다, 평소 유머를 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환자의 건강 상태가 유머를 사용할 상황이 아니다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유머를 인지하는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간호사가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의 차이 검증에서는 성별, 결혼 종교, 근무만족여부, 연령, 학력, 병원형태, 경력, 근무부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서문자와 김금순(1993)은 결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손현숙(2008)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현주(1999)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유머감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과 유머감각과의 관계에서 1년 이하 군이 가장 높게 조사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많이 접하여 유머 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 진입의 시기에 있는 20~30대에서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유머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유머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시기인 것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25세 이하에서 유머감각이 높게 측정되었다. 민순 등(2004)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연령이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유머감각 점수가 높은 성향을 보이며 이는 일에 대한 숙련정도가 유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Woodhouse(1993)는 유머를 상황에 따라 인지가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스트레스만큼 다양하고 개인차가 많은 개인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에서 이러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보면 유머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적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개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의 유머감각에 대한 조사는 설문조사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물리치료사가 지각한 임파워먼트 정도는 84점 중 56.67 ± 12.72 로 평균 평점으로 환산하면 7점 중 4.72로 나타났다. 손현숙(2009)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7점 중 4.68이었고 남경희(2009)의 연구

에서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7점 중 4.63이었고 양길모(1999)의 연구에서는 5점 중 2.83이었다. 손보경(2003)의 연구에서는 4점 중 2.86, 이현주(2002)의 연구에서는 6점 중 4.60이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임파워먼트 점수는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점수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의미성 요소가 15.50 ± 03.0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역량은 14.65 ± 02.84 , 자기결정성은 14.00 ± 03.31 , 효과성은 12.52 ± 03.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현숙(2008), 김은실(2000), 남경희(2001)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물리치료사들은 자신의 이상과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업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성과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효과성 점수가 낮은 것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가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하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이를 수행하는 일이 병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제력은 낮게 지각하였기 때문으로 간주된다(김은실, 2002). 이는 연구대상자를 일반간호사로 하여 나타난 연구 결과로 보여지며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의 지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역량을 증진 시키고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직내 구조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는 성별, 결혼, 근무만족, 연령, 학력, 병원형태,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물리치료사의 성별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에서는 기혼일수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형태에서는 병상수가 많을수록, 경력이 길수록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높음을 보였는데, 이는 손현숙(2008), 이현주(2002), 차윤석(1995)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정양화(2008)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력과 병원형태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

에서의 근무 형태가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심재훈, 2009), 연령과 경력이 길수록 임파워먼트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년차가 올라갈수록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증가하면서 책임감, 성취감 등을 높게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원간의 협조와 조화에 교량적 역할을 하며(박선아, 1994) 상사와, 동료 그리고 타부서간의 상호관계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손보경, 2003).

조직 내 임파워먼트가 있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파워증진이 일어나야 하며 자신의 파워를 타인에게 이전시켜 나아가 집단 임파워먼트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중심점이 되는 중간 경력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손현숙, 2008).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조직 또한 중간 경력 치료사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업무능력향상을 이끌어 임파워 된 조직 구성원을 형성해 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의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는 $r=0.093(p=.118)$ 로 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현숙(2008)의 간호사의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를 비교한 $r=0.254(p=.005)$ 로 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하부영역에서는 유머선호도와 임파워먼트, 유머선호도와 역량, 유머선호도와 자기결정성, 유머선호도와 효과성, 자기결정성과 유머감각에서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현숙(2008)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의 유머는 응집성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며, 신입사원을 조직문화로 이끌어 사회화시키고, 즐거운 작업환경을 만들며,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완수하도록 환기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Karen Vinton, 1989). 전미향(2005)은 유머감각이 호텔종사원의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고 이직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머가 의사소통을 부드럽게 하고(Levine, J, 1996) 여러 연구결과에서(Herth, 1984; 차문

희, 2007) 교육전략으로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머가 생리적, 정신 치료적 효과 외에도 사회적, 교육적인 측면과 의사소통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임파워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의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가 의미 있는 관계로 나타난 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유머의 다양한 효과는 조직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매니지먼트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데 다목적적인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병원 이외에도 많은 기업은 유머경영을 도입하고 상사와 경영진을 신뢰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일터(Great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변화에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며 병원의 다양한 조직 중 물리치료사조직 또한 마찬가지이다.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의 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하위영역 중 유머선호도 영역에서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나 치료사의 '유머러스한 역할을 즐기는 정도'가 조직의 임파워먼트와의 유의관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머감각이 조직의 임파워먼트의 영향이 있다.

웃음프로그램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인지된 스트레스와 우울을 줄이고 기분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향수(2009)에서와 같이 치료사의 유머가 조직의 임파워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자 치료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웃음은 환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줄이는 치료적 효과 외에도 물리치료사조직 구성원 간에 신뢰감, 친밀감, 집단응집력을 높이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웃음이 조직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고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아가 물리치료사조직은 환자치료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유머를 통한 조직 임파워먼트 효과를 상승시키는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병원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유머 감각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임상에서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유머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치료사의 유머감각 정도는 평균 56.53±05.58로 물리치료사들은 유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하위영역은 정서 표현성, 유머선호도, 메타메시지 감수성 순으로 나타났다.
2.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평균 56.67±12.72로 높게 지각되었고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효과성 순으로 나타났다.
3.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정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정도는 성별, 결혼, 근무만족도, 연령, 학력, 병원형태,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에서는 기혼일수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형태에서는 병상수가 많을수록, 경력이 길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물리치료사의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와 상관관계는 $r=0.093(p=0.118)$ 으로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는 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하위영역에서는 유머선호도와 임파워먼트, 유머선호도와 역량, 유머선호도와 자기결정성, 유머선호도와 효과성, 자기결정성과 유머감각에서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물리치료사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 정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유머감각과 임파워먼트의 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하위영역 중 유머선호도 영역에서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나 치료사의 '유머러스한 역할을 즐기는 정도'가 조직의 임파워먼트와의 유의관계를 볼 수 있었다. 유머선호도가 높을수록 치료조직의 임파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물

리치료사조직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즐거움을 통해 치료 업무성과를 높이고 물리치료사조직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유머감각이 조직의 임파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직의 상승효과로 나아가 환자치료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보다 많은 유머를 통한 물리치료사조직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광점, 정명숙. 감정노동과 상사와의 감성지능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병원경영학회지. 2006;11(4):1-18.
- 김묘성. 한국간호사의 유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02.
- 김연희. 병원 종사자의 적응적 직무수행 관련 요인[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2010.
- 김은실. 임상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002.
- 김태우. 보험사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이 관계 질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2005.
- 김향수. 웃음프로그램이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인지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2009.
- 김희승, 김명자, 유소영 등. 가정전문간호사의 직접 간호업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여성간호학회지. 2004;10(3):261-5.
- 남경희.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 문제강, 송보경, 황병용. 서울특별시공공의료기관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10;22(2):61-8.
- 민순, 정영주, 김혜숙. 간호사의 유머감각과 업무성과와의 관계, 대한 경영학회지. 2004;45(8):1427-1444
- 박선아. 조직문화, 리더쉽, 직무특성이 임파워먼트에

-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4.
- 박재산. 병원 행정인력이 인지하는 조직 직무특성,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간의 관련성. 보건행정학회지. 2004;14(1)65-88.
- 서문자, 김금순. 입원환자의 유머감각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993;5(1)72-85.
- 손보경.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 및 조직분위기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3.
- 손현숙. 간호사 유머감각이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2009.
- 신현주.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유머감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 심재훈. 물리치료사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9.
- 심재훈, 김윤신, 윤태영.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08;15(3):70-9.
- 양길모.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업무관련 개인적 특성, 업무성과 관계분석[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9.
- 이현주.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비판적 사고 성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2.
- 최원주. 병원간호사의 성격과 감정조절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2010.
- 전미향. 호텔종사원이 지각하는 유머감각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2005.
- 정양화. 학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8.
- 정현우. 리더의 유머감각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12;31(2):90-101.
- 정해주.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 차문희. 교사의 유머감각과 과학학습 효과의 상관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7.
- 차윤석. 비전적합성, 임파워먼트, 그리고 조직유효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5.
- 최정, 하나선. 간호사가 지각한 내부마케팅 활동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 최영남. 웃음치료 프로그램의 사회복지 적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9.
- 한명수. 보건 진료원 실무에서의 임파워먼트[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9.
- 황명숙.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의 관련성 연구. 정신개벽논집;1993.p.141~168.
- Carolyn LB, Phyllis RS. An organizational strategy for empowering nursing. *Nursing Economics* 1991;4(2):69-73.
- Cherness C. Staff burnout: Job stress in the human servic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1987.
- Herth, K.A., Laughter. *A Nursing RX*.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84;84:991-992.
- Laschinger, H.K.S & Havens, D.S. Staff nurse work empowerment perceived control over nursing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96;26(9)27-35.
- Levine, J. *The Handbook of Humor Clinical Applications of psychotherap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96;11(1)82.
- Pasquali, E. Learning to laugh. humor as therap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1990;28:31-35.
- Puderbaugh, A.(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s' humor styles and subordinate job satisfaction[dissertation]. Minneapolis Unpublished Capella University.;2006.
- Sabinson JA, Laschinger HKS. Staff nurses work empowerment and perceived autonomy. Testing Kanter's theory of structural power in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1995;25(9):42-50.
- Schaufeli WB, Enzmann D. The burnout companion to

study and practice. A critical analysis. Philadelphia, PA. Taylor & Francis. 1998.

Spreitzer GM.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95; 38(5):1442-1465.

Spreitzer GM. An empirical tes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95;23(5):601-629.

Svebak,S. Revised questionnaire on the sense of humo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1974;15(4): 328-331.

Vinton, K.L. Humor in the workplace. It is more than telling jokes. Small Group behavior 1989;20(2): 151-166.

Woodhouse,D.K. The Aspects of Humorin Dealing with Stress. Nurse Admin. Q.,AspnPublishersInc. 1993 ;18(1):80-90.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14년 8월 08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14년 8월 22일

논문게제승인일(Date Accepted) : 2014년 9월 26일
